2015년 1월 20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기술위원장 이시이 츠네히코

**SPF 하한값 설정에 대해(자발적 기준)**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평소 당 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기해와 협조해 주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이하, “장공련”이라고 한다)에서는 2011년 10월 5일에 SPF 측정법 기준을 개정하고, ISO24444를 SPF 측정법의 자발적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SPF 측정법 기준은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약용화장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기준이며, 기준에 관한 배경이나 목적 등의 상세는 장공련이 작성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효과 -SPF와 PA 표시- 2012년 개정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SPF 측정법 기준에는 SPF의 산출방법으로, 피험자별로 얻어진 SPF 산술 평균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정수로 나타내는 것 및 얻어진 SPF가 50 이상이며, 95% 신뢰한계의 하한 값이 51.0 이상인 경우에는 SPF50+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하한 값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한편, 최근 시장에서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촉진시키는 듯한 SPF0을 표방하는 상품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SPF0이라는 것은 SPF 측정법 기준의 설정 목적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듯한 기재이며,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F 측정법 기준은 자외선 방지용 화장품에 기재되는 것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하한값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향후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화장품(약용 화장품을 포함한다)에서의 SPF 하한값을 2로 한다”는 것을 장공련의 자발적 기준으로 합니다.

각 사에서는 본 자발적 기준에 철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